

벤츠, S-클래스 최강 'AMG S 63 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첫 적용...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행 성능 포물러1 TM기술 기반 고성능 PHEV 시스템·AMG 엔진 조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S-클래스' 모델 중 가장 강한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를 국내 출시한다.

AMG S 63 E 퍼포먼스는 AMG 모델 중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차량으로, 제로백 3.3초, 최고 출력 802 마력의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출시 AMG 라인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S 63 E 퍼포먼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모델 S-클래스에 AMG의 강력한 성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할 경우 최고 출력 802 마력, 최대 토크 124.3 kgf·m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S 63 E 퍼포먼스는 가솔린 엔진만 장착했던 이전 세대 S 63(V222) 대비, 190마력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의 가속은 기존보다 0.2초 줄어든 단 3.3초가 소요된다.

뛰어난 주행 성능은 포물러1TM 기술이 접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퍼포먼스'의 영구 자석 동기식 모터(PSM)의 최대 출력 190 마력에 AMG 4.0 l V8 바이터보 엔진의 최대 출력

612 마력이 합쳐져 뿜어내는 힘이다.

이와 함께 AMG 퍼포먼스 4MATIC+ 완전 가변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돼 파워, 효율성,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새로운 냉각 모듈이 적용된 AMG고성능 배터리는 13.1 kWh의 용량으로 국내 인증 기준 최대 25km까지의 전기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또 에어 서스펜션과 에어티브 조정 댐핑 시스템 기반의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 순수 전기 모드 포함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 약 3도의 뒷바퀴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강력한 성능을 뒷받침하는 주행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차량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인다. 전면에는 S-클래스 최초로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실내·외 곳곳에 AMG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기존 S-클래스 특유의 우아함에 강렬한 인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자랑한다.

더불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와 함께 디지털 라이트, 원격 주차 패키지 등 주행 편의 사양뿐만 아니라, MBUX 하이엔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MBUX 인터리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출시한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 AMG 모델 중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해 최고 802마력을 낸다.

어시스턴트, 부메스터 3D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 차별화된 실내 경험을 제공하는 옵션들이 대거 탑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킬리안 쉴렌(Kilian Thelen) 부사장은 "S 63 E 퍼포먼스는 S-클래스에 메르세

데스-AMG의 강력한 성능, 포물러1TM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모델"이라며, "럭셔리 세단 세그먼트의 전동화에서 또다른 기술적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는 이

달 내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차량 가격은 2억 99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차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년만에 새단장 기아 첫 전용전기차... '더 뉴 EV6' 계약 개시

새 디자인 적용...SDV 사양 강화 유럽·북미 올해의 차...내달 출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사진)가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EV6의 상품성 개선모델 '더 뉴 EV6'의 계약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식 출시는 다음 달이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EV6는 2021년 8월 출시 후 전 세계에서 21만대 이상 팔린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다.

2022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지난해 '북미 올해의 차'에도 올랐다.

더 뉴 EV6는 신규 디자인이 적용되고 84kWh(킬로와트시)의 4세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이 새롭게 탑재됐지만, 가격은 동결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아는 '현대적 대비' (Modern Contrast)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더 뉴 EV6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전면과 후면 램프에 별자리를 형상화한 기아의 새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고, 날개 형상의 범퍼가 탑재된 것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다.

실내에는 이전보다 커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역동적 그래픽이 추가된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됐다.

더 뉴 EV6에는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롱레인지 2WD(이륜구동) 모델 기준 475km에서 494km로 증



가했다.

여기에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350kW(킬로와트)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 80%까지 채울 수 있다.

특히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수 감응형 속업소버를 강화해 승차감을 개선했고, 후륜모터의 흡차음 면적을 넓혀 정숙성을 높였다. 아울러 측면 기동(B빌라)의 두께를 늘리는 등 차체 강성을 보강했고, 2열 측면 에어백을 추가했다.

SDV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이 대거 탑재된 것도 더 뉴 EV6의 특징이다.

차량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됐고, 기존 내비게이션에만 가능했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범위가 제어 기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무선 연결 기능이 적용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운전자가 키를 소지한 채

하차한 후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워크 어웨이 락'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즐길 수 있다.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감지 등 첨단 운전 보조시스템(ADAS)도 탑재됐다.

함께 출시되는 고성능 GT라인 모델은 전후면 범퍼를 더욱 날렵하게 만들었고, 전용 20인치 휠이 탑재됐다.

기아는 더 뉴 EV6 출시에 맞춰 전용 구매 프로그램인 '트리플 제로'를 함께 운영한다.

트리플 제로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보유 차량을 매각하고, 더 뉴 EV6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특별 변동 금리 할부도 적용된다. 또 중고차 잔존가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후 기아 차량 재구매 시 최대 60% 수준으로 EV6의 잔존가치를 보장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출 전기차 절반 미국행... '미국 쏠림화' 우려

"수출 다변화·현지 생산 필요"

올해 들어 해외 각지로 수출되는 국산 전기차의 절반가량은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수출 국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출된 국산 전기차 8만1천 631대가운데 절반만 가까운 3만6556대(44.8%)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국산 전기차의 전체 수출 대수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11.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와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산 전기차가 처음 수출된 2014년 미국행 전기차는 622대에 그 비중도 17.6%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크게 늘어 그해 처음 1만대를 넘겨 1

만1790대(비중 15.5%)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기차 6만8923대 수출에 비중도 31.3%에 달하더니 지난해에는 10만대까지 돌파해 12만1876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그 비중도 역대 최대인 35.1%에 달했다.

문제는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전기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경우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내 과도한 점유율을 보이면 뜻하지 않게 관세 부과와 같은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산 전기차의 점유율과 판매율이 미국에서 계속 높아지면 현지에서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내 생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 55층 2개동 GBC조감도 공개

105층→55층 설계안 변경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안을 20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사진)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GBC'라는 명칭을 유지하되, 그 뜻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이 강조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모두 5개 동으로 GBC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초고층 타워를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것으로 설계안을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동과 복합전시산업(MICE), 문화·편



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 동 등 총 6개동으로 조성된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단지 내 각각 선 방향으로 배치된다. 단지 중심에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도심숲이 자리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저층부는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민친화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이노비' 장착 현대N페스티벌 1·2R 우승 레이싱 대회 기술력 입증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비(EnnoV)가 레이싱 대회에서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노비를 장착한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영찬이 지난 11일-12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1, 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eN1 클래스는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이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비가 장착된다.

이노비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합쳐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왼쪽 세번째)가 포디엄을 달성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한편 올해 eN1 클래스 총 5라운드에 걸쳐 10번

의 레이스가 진행되며 스피리트, 1대 1 토너먼트 등 여러 형태의 경주 방식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G모빌리티, 인증중고차 사업 시작

서울 강서구에 1호 전시장

KG모빌리티(KGM)는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 첫 인증 중고차 오프라인 전시장을 열고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KGM은 5년·10만km의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인증 중고차 상품화 절차를 거쳐 판매할 예정이다.

KGM의 인증 중고차는 정밀진단, 성능개선, 외관개선 등 7단계 280여개 항목의 진단검사 및 품질개선을 거친다. 그 결과는 인증 중고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다.

인증 중고차 상품화 과정은 국내 최초로 제조사 직영서비스센터(KGM 군포 광역서비스센터)가 진행한다

KGM은 최근 1년간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시세를 반영해 최고가로 중고차를 매입하며, 고객이 인도받은 인증 중고차에 만족하지 않으면 3일 내 환불해주는 '책임 환불제'를 운영한다.

인증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비자 구매 시점 기준 1년·2만km까지 무상 보증(신차 판매 시 무상보증 기간 포함)을 제공한다. 판매를 비롯해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등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